

BSEF, 브롬계 난연제 써도 된다!

2003년 12월 deca-BDE 위험평가 결과 발표 ... 사용 허가 기대

브롬계 난연제 가운데 일부인 PBB, penta-BDE, 그리고 octa-BDE 3종이 유럽과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의해 금지결정을 받았을 뿐 전자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TBBPA와 deca-BDE의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EU 위험평가 우선 대상 난연제로 지정된 deca-BDE와 TBBPA는 각각 2003년 12월, 2004년 12월에 위험평가 확정을 받을 예정이다.

브롬과학환경포럼(BSEF)은 11월 5일 조선포럼에서 열린 '브롬과학환경포럼 서울 세미나 2003'에서 브롬계 난연제 규제경향과 전기·전자기기의 내화성 및 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국제표준협회(ISO)의 새로운 기준 발달상황을 소개했다.

BSEF에 따르면, deca-BDE 연구결과 환경 및 인체 유해성이 낮으며, 전문기업들에 의해 deca-BDE가 사용된다면 환경 오염물질 방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, 뛰어난 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U 위험평가 결과 사용규제 면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.

또 사용규제 되고 있는 penta-BDE가 PBDE족 난연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penta-BDE에 관한 우려가 전체 PBDE에 대한 우려로 잘못 보고돼 왔지만 deca-BDE는 penta-BDE와 환경 및 인체 독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.

BSEF는 세미나에서 국제표준기구(ISO)가 촛불과 같은 외부 점화에 의한 화재위험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전기·전자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화재 안전에 부응하기 위한 브롬계 난연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. <심혜련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1/12>